

Book Mark



보고서



0

목록

불가리아 육해공군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현황

미리보기 |

스크랩

Keyword #방산

2032년까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 예정
전투기, 장갑차, 자주포 등 다양한 신형 무기체계 도입 추진
대형프로젝트 뿐 아니라 중소형 프로젝트도 눈여겨 볼 필요 있어

불가리아군은 나토(NATO)의 '웨일즈 협약(Wales Declearation)'에 따라 2023년 10월 '불가리아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을 개정하여 2032년까지 GDP의 2%를 국방비로 배정하고 이 중 20%를 신무기 조달에 활용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무기 체계를 NATO 규격에 맞게 현대화해 통합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불가리아 국방전략 변경 내용

발칸, 코카서스,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의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전선인 불가리아는 2032년까지 GDP의 2%를 국방비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중 20%를 신무기 조달에 활용해 군사 장비 현대화를 추진한다. '노보셀로(Novo Selo)'에 주둔하고 있는 NATO 다국적 전투단의 규모도 늘린다. 개정 전에는 불가리아군의 주요 대응 상대를 '테러리즘, 지하디스트 운동 등 반세계화 세력'에서 '러시아'를 추가 명시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군의 역할을 '방어' 뿐 아니라 '억제와 방어'로 강화했다.

군 현대화 추진 현황

불가리아군은 2032년까지 총 13개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군 현대화를 목표로한다. 신형 장갑차 구매부터 자주포, 대공 방어 미사일, 다목적 디젤 잠수함 등 전 분야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장갑차 구매와 F-16 전투기 구매는 추진 중이며 나머지 프로젝트의 경우 추진 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나열된 프로젝트 이외에 군 현대화를 위해 전차 개량, 신형 개인화기 도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불가리아 군 현대화 추진 현황>

연번	프로젝트	도입상황	도입 목표 연도
1	장갑차 구매	추진중	2026. General Dynamics 사로 구매 결정
2	155mm 자주포 구매	미정	2026
3	방공망 설치	미정	2026
4	다연장 미사일체계 구매	미정	2026
5	F-16 추가 구매	추진중	2026. F-16 추가 구매 국회 의결 통과
6	3차원 대공레이더 구매	미정	2026
7	대공 방어미사일 구매	미정	2026
8	고고도 무인항공기 구매	미정	2026
9	연안 대함 체계 구축	미정	2026
10	다목적 디젤 잠수함 구매	미정	2026
11	다목적 공병 전투차량 구매	미정	2032
12	전술 교신 및 정보 시스템 도입	미정	2032
13	미사일 전투정 구매	미정	2032

[자료원 : 현지언론 국방신문, 조사시기 2024년 4월]

육군 현대화 추진 현황

1)전차 현대화

육군의 주력 무기인 전차의 경우 구소련의 'T-72'를 개량하여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1980년대 도입된 이 전차는 125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노상에서 약 80km/h 까지 가속할 수 있다. 개량 작업은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인 '엘빗시스템(Elbit Systems)'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상 센서를 장착해 사격시 습도나 바람 등을 반영한 디지털 조준경을 장착해 사격 체계(FCS, Fire Control System)를 개선했다. 포탑에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경고를 해주는 '엘빗 시스템 레이저 경고체계(Elbit Systems' Laser Warning System)'도 장착한다. 현지언론 '에픽센터(Epiccenter)'의 보도에 따르면 전차 현대화 프로젝트로 인해 향후 10년 간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T-72 사진>



[자료원 : 현지언론 OFF NEWS, 조사시기 2024년 1월]

2) 장갑차 현대화

기계화 보병 운용을 위해 핵심적인 무기 체계는 장갑차다. 불가리아는 약 13억 유로를 투입해 미국으로부터 '스트라이커(Stryker)' 장갑차 약 190대를 구매한다. 현재 운용 중인 'IFV/APC(보병 전투차량/보병수송차량)'은 소련에서 생산된 'BMD-60'과 'BMP' 시리즈인데 노후화 되어 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미국의 '제네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에서 2000년 초 개발한 장갑차로 9명의 보병을 수송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무유도 대전차로켓(RPG)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가벼운 지뢰에도 버틴다. 현지 언론 '스보보네브로파(Svobodnaevropa)'의 보도에 따르면 '정찰용', '화생방용', '지휘용' 등 다양한 버전의 장갑차가 도입될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30mm 최신헌 기관포인 '부시마스터(Bushmaster)'는 장착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5년 전 스위스 모바그(MOWAG)사에서 개발한 '피라냐(Piranha)'와 핀란드 파트리아(Patria)사에서 개발한 '파트리아(Patria)' 등 신형 장갑차를 조달하고자 노력했으나 무산된 기록이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화 장갑차 조달에도 불구하고 육군 내 구형 장갑차의 전체적인 대체는 어려워 'BMP'시리즈도 함께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라이커 장갑차>



[자료원 : 현지언론 캐피탈, 조사시기 2024년 1월]

<스트라이커 장갑차 제원>

구분	내용
현가장치	8x8
항속거리	500km
최고속도	97km
주무장	TOW 대전차미사일, M240 등
승무원	11명 (승무 2명+보병9명)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조사시기 2024년 1월]

3) 자주포 현대화

소련의 자주포인 '2S1 그보즈디카'를 주력 자주포로 운용하고 있다. 불가리아군은 122mm의 구 소련 무기 체계를 NATO와 통합하기 위해 '155mm 자주포'를 신규 조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지언론 '캐피탈(Capital)'의 보도에 따르면 155mm 자주포 중 궤도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닌 차륜형 자주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가리아군 전문가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불가리아는 상대적으로 산지가 많고 국토가 작아 기동성이 우수한 차륜형 자주포가 선호된다"고 이야기했다. 155mm 구경의 차륜형 자주포는 프랑스 넥스터(Nexter)'사에서 개발한 '카이사르(CAESAR)'가 있다. '카이사르' 자주포는 덴마크, 프랑스, 체코 등 다양한 나토 회원국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이 있다. 예상 예산은 4~6억 유로이며 1개의 포병 사단을 현대화 하는것이 목표다.

<카이사르 자주포>



[자료원 : 넥스터, 조사시기 2024년 1월]

<카이사르 제원>

구분	내용
현가장치	6x6
항속거리	600km
적재포탄 속도	18발 초탄 1분 50초
최고속도	100km
사거리	약 30km (포탄별로 상이)
승무원	5~6명

[자료원 : 디펜스투데이, 조사시기 2024년 1월]

4) 다연장 로켓 현대화

다연장 로켓도 현대화 추진 대상이다. 1960년대 소련에서 개발된 'BM-21'을 여전히 운용하고 있다. 아직 세부적인 조달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 '스보보네브로파(Svobodnaevropa)'의 보도에 따르면 정밀 타격이 가능한 현대식 다연장 로켓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대식 다연장 로켓의 일종인 '하이마스(HIMARS)'>



[자료원 : 록히드마틴, 조사시기 2024년 1월]

5) 개인 보병 화기 현대화

개인 보병 화기도 현대화한다. 불가리아 방산기업 '아스날(Arsenal)' 사에서 생산하는 '오토매틱 칼라시니코프(AK)' 베이스의 7.62mm 소총으로 교체하는데, 마운트가 장착되어 보병용 조준경, 수직안정기, 유탄발사기 등을 장착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2.5년이며 예산은 3백만 유로다.

<7.62mm AK베이스의 아스날 소총>



[자료원 : 아스날, 조사시기 2024년 1월]

해군 현대화 추진 현황

1) 소해함(기뢰제거함) 건조

흑해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2024년 1월, 튀르키예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정부는 '흑해 안보 체계'를 구성하여 흑해에 떠다니는 기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추진한다. 불가리아 해군은 15척의 구형 소해함을 운용하고 있으나 개보수가 미비한 편어서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소해함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해군은 현대화된 초계함 획득을 추진중이며 독일의 'NVL'에서 1번함을 건조했고 2번함을 건조 중에 있다.

<불가리아 해군 소해함 '치바르급'>



[자료원 : 불가리아 국방부, 조사시기 2024년 1월]

2) 대함 미사일 체계 구축

흑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흑해 연안에 대함 미사일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운용중인 대함 미사일 포대는 '루베즈(Rubezh)' 미사일이다. 신형 함정에 탑재되는 미사일은 스웨덴 '사브(SAAB)'사의 'RBS-15 MK3' 미사일이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지대함 미사일 체계에 어떤 미사일을 도입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 '에어로베게(Aerobg)'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NSM(Naval Strike Missile)' 체계와 스웨덴의 'RBS-15'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RBS-15'를 택할 시 유지 보수 등 군수 분야에서 강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공군 현대화 추진 현황

1) 전투 헬리콥터 도입

불가리아 공군은 Mi-24 전투 헬리콥터를 6기 운용 중이다. Mi-24는 80년대 개발된 헬기로 노후화되어 불가리아 국방부는 신형 헬기 도입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신 무기 조달과 관련한 국방 예산이 16대의 'F-16V'와 약 190여 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집중 배분되어 '아파치(Apache)'와 같은 최신형 무기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관은 현지 공군 관련 방산업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담당자도 "공격용 헬리콥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불가리아군에서 운용중인 Mi-24>



[자료원 : 에어로 베게(Aero-bg), 조사시기 2024년 1월]

2) 대공 미사일 도입

현재 불가리아 공군은 러시아의 'S-300 방공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현지 언론 '프로그뉴스(Frognews)'의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S-300'은 NATO의 방공 체계와 전혀 호환되지 않으며 미사일의 신뢰성이 낮아 효과적인 방공망 구축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불가리아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형 대공 미사일 도입을 준비한다. 세 부적으로는 중 장거리 미사일 방공 체계로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4년 1월 NATO에서는 유럽에 1,000기 이상의 '패트리엇(Patriot, PAC3)'를 추가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현지 방위 산업 전문가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패트리엇과 같은 중고도 요격용 미사일을 도입할 것 같다"고 주관적 의견을 전했다. 튀르키예의 방산 전문 언론 '디펜스 튀르키예(Defence Turkey)'의 보도에 따르면 패트리엇 포대는 대략 5억 달러이며, 미사일 기당 700만 달러로 예측된다.

<패트리엇 미사일>



[자료원 : 록히드마틴, 조사시기 2024년 1월]

3) 중고급 드론 및 관련 체계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술이 등장하자 불가리아군도 중고급 군사용 드론을 도입하고자 한다. 정찰용과 사격용, 폭격용 등 다양한 드론이 여기에 포함된다. 드론을 운용하기 위한 레이더 체계도 필요하다. 적성국 드론의 공격을 막기 위한 '대드론용무기(Anti-drone weapon)'도 조달한다. 대드론용 무기는 단순 드론을 요격하는 기능 뿐 아니라, 레이더와 융합하여 드론을 식별하고 요격 결정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 기업 A사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에서 드론 요격용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요격 시험에서 대부분 불합격했다"며 "요격용 드론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레저용 드론이 아니므로 확실한 요격을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사점

주변국의 안보위협이 증가하면서 불가리아의 무기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정적인 예산으로 한번에 모든 무기체계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관은 불가리아 방산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방산 전문가는 "한국산 무기가 최근 동유럽에서 선전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다"고 하며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가리아군은 보수적인 특성이 있어 지속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력을 내세워 미국산 등 NATO 내부 무기 체계에 경쟁 우위 요인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형 무기 프로젝트는 NATO와의 작전 능력 효율화를 위해 NATO 내부에서 조달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투기와 장갑차 등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산 무기

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불가리아 시장 진출을 원하는 한국 방산 기업에게는 "대형 프로젝트 뿐 아니라 중소규모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며 "조달 과정에서 불가리아어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으므로 우수한 현지 파트너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소피아 무역관은 6월 플로브디프(Plovdiv)에서 열리는 '헤무스 방산전시회(HEMUS 2024)'에 최초로 한국홍보관을 운영한다. 국방부, 내무부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전시회는 6월 5일(수)부터 6월8일(토)까지 플로브디프 인터네셔널 페어(Plovdiv International Fair)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지 전문가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군용 광학장비, 안티 드론, 전투용 드론 등 장비 뿐 아니라, 관제 체계, 국경 관리 체계 등 다방면에서 수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업체들의 불가리아 진출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헤무스 방산전시회>



[자료원 : 헤무스 웹사이트, 조사시기 2024년 1월]

자료원 : Epiccenter언론, Svobodnaevropa언론, Capital언론, 국방뉴스, AergoBG언론, Frognews언론, 헤무스, 무역관 자료 종합



KOTRA의 저작물인 (불가리아 육해공군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현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